

만남 Meeting

김성우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ung-Woo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나 자신과 사물 모두를 하나하나의 대상물(對象物) 또는 대상체(對象體)로서 보는 경향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 사물 모두를 독립적 대상으로 보지않고, 서로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상황으로 보는 경향이다. 앞의 관점은 물리적 존재성을 중요하게 보았고, 뒤의 관점은 상호적 관계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앞의 경향을 대상적(對象的) 관점, 그리고 뒤의 경향을 관계적(關係的) 관점이라고 이름붙여 볼때에 두가지는 결국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 다른 생각습관의 차이에서 온다. 하나는 개체, 개체의 사물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사물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대상자체의 어머함에 신경쓰고 또 하나는 대상사이의 관계의 어머함에 신경쓴다. 그러나 두가지 경향은 각각 흑(黑)과 백(白)으로 나뉘듯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관계의 함수관계에서 어느 쪽에 얼마나 더 비중을 두는가하는 정도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문화는 대상적 사고가 발달했었고 동양문화는 관계적 사고를 발달시켜왔다. 사람과 자아를 인식할 때 서양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개체중심적으로 파악하고 동양사람들은 더 관계적이고 집단적으로 파악한다. 건축을 생각할때도 서양사람들은 독립적 건물중심적으로 건축을 생각하고 동양사람들은 관계적 상황연출로서 건축을 생각한다. 서구적 사고와 건축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건물중심적 경향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그것이 본래적으로 서구문화의 대상적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건축이 얼마나 철저히 관계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가를 관찰해보면 서양건축의 대상적 입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동서양의 건축을 비교해 볼 때 하나는 대상주의적 관점에서 또 하나는 관계중심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관찰하지 않는다면 두가지 경향의 본질적 구조를 놓칠 수밖에 없다.

대상과 관계의 두가지 입장이 모두 "만남"의 문제를 건드린다. 대상적 경향은 대상들의 만남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고 관계적 경향 또한 "만남" 사이의 상호성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 만남이란 사람과 사물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물과 사물의 만남 모두를 포함한다. 대상적 만남은 독립적 대상체들이 서로 이웃해 있음으로써 만나게되는 물리적 종류의 만남이다. 즉 물리적인 "옆에있음"의 의미에 가까워진다. 여기서는 만나는 대상체가 만나는 상대 때문에 또는 그 상호성에 의해서 자신을 변형시켜야할 이유까지는 없다. 나는 나, 너는 너로서 존재하되 그 나와 너가 만나게 되어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관계적 만남은 대상적 만남과 같지 않다. 관계적 만남의 대상들은 만나는 대상들이 만남으로 하여 생기는 관계성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고 맞추고 조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만나는 대상이 자기 스스로를 완성하려하기보다 만나는 대상사이의 관계를 완성하려한다. 개체를 관계에 예속시키지 그 반대를 거부한다. 그래서 부분보다 전체를 지향하고 개체성보다 조직성을 중요시한다.

대상적 만남과 관계적 만남은 문화의 성격을 다르게 하고 사람을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게하고 건축

의 성격을 다르게 만든다. 대상적 만남은 대상적 문화를 만들고 사람을 대상적 사람으로 만들고 건축을 대상적 건축이 되게 한다. 관계적 만남은 문화, 사람, 건축을 모두 관계적인 것으로 만든다. 서구문화는 대상적 문화이고 서구인은 대상적 인간이며 서구건축은 대상적 건축이다. 이러한 서구의 대상성에 비교할 때 동양의 문화와 사람과 건축은 관계적이다. 그 동서양의 차이는 “만남”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했는지의 차이이다.

건축은 만남이다. 건축은 우선 사람과 건물의 만남이고 건물과 자연의 만남이고 건물과 건물의 만남이다. 건물과 건물의 만남은 도시의 문제를 만들고 건물과 자연의 만남은 환경의 문제를 만들고 사람과 건물의 만남은 건축의 문제를 만든다. 건축은 이 세가지 만남 모두를 다루어야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건축을 건물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건축을 건물만들기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설계는 건물 하나하나의 독립적 대상건물의 설계로서 취급하고 구조계산과 시공 역시 건물 하나하나의 독립적 실현을 문제 삼는다. 그것은 대상적인 접근방법이다. 그것은 대상적 관점에서의 사람과 건축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전통은 그러한 대상적 인식에 익숙한 것이 아니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건축의 사고습관에 익숙해지면서 대상적 건축을 자기화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래서 건축과 사람의 관계가 대상적 관계가 되고 건물과 건물, 건물과 자연의 관계도 대상적 관계가 되어버렸다. 모든 만남의 대상이 자기자신의 어떠함을 관심하고 상호적으로 있어야하는 관계의 어떠함에 무관심했었다.

건축, 인간, 자연은 각각 자기중심적 개체로 취급되어 그 사이에 있어야하는 적당한 관계가 손상된 것이다. 근대 도시의 문제와 환경문제는 바로 그 관계의 손상에서 온다. 관계의 부적절함이다. 대상이 관계의 소리를 듣고 그 요구에 따라 자신을 조절, 조화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 생긴 관계의 손상이다. 그래서 대상의 개체적 요구만 만족시키면 대상이 원하는대로 완성되니까 좋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대상사이의 관계가 손상되고 관계가 손상되면 대상이 손상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관계의 손상은 개체의 건강을 손상시킨다. 즉 적절치 못한 관계는 개체를 병들게 한다. 근대사회는 그 속의 인간, 건축, 자연 모두를 병들게 했다. 도시속의 예쁜 건물, 화려한 사람은 모두 속으로 중병을 앓고 있으며 도시속의 자연은 더 먼저 병들어야만 했다. 인간과 자연과 건축이 서로간에 만남으로하여 생겨져야하는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가 살아있었어야 했으나 그 모두가 단절적 대상적으로만 만나려 했기에 그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살려내지를 못했다. 관계가 살지 못하면 만남의 대상은 건강치 못하다. 대상이란 본래 관계속에서만 생성되는 관계적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대상은 본래 관계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대상적 만남은 다시 관계적 만남으로 돌아켜져야 한다. 인간과 건물, 그리고 건물과 건물, 또 건물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고,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궁극적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만남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또 자기만족적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 같은 사물인식은 하나의 착각이었다. 모든 사물을 분석하고 분해하여 관계를 찢라내고도 개체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또 하나의 착각이었다. 모든 관계

를 끊고 독자적으로 대상화시키기를 계속하였을 때 발전이 가능하고, 이상적 사회가 성취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었고, 허황된 꿈이었다.

건축에서부터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건물과 자연사이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그리고 건물과 인간 사이에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건축에서의 모든 대상적 만남을 관계적 만남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관계의 회복이 건강의 회복이고, 건강의 회복이란 바로 생명의 회복이다. 건강한 생명은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관계는 단절적이고 자기 만족적 대상은 궁극적으로 그 대상자체의 죽음을 초래한다. 대상사이의 관계단절은 대상의 죽음이다.

건축행위를 대상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건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근대 도시와 환경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죽음에 도달하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뿐이다. 대상적 만남은 관계를 약화시킨다. 관계적 만남이 또한 상대적으로 대상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도 물론 사실이다. 그래서 양쪽의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맞는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근대사회는 대상적 만남과 대상적 입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서 앓고 있는 중병의 증세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에게는 대상적 만남을 관계적 만남으로 전환시켜야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상과 관계의 조화를 찾는 것은 조화를 찾을 대상들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T.V에서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울었다.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만남을 보고, 그 만남의 기쁨과 마음속에 쌓였던 슬픔을 느끼며 모두가 울었다. 그 울음은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질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만 하고, 이어져 있어야만하는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은 사람을 처절하게 기쁘게한다. 단절된 관계가 잠시 이어졌다가, 또 다시 헤어짐으로 단절되어야만 할 때 당사자들은 또다시 오염한다.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한다. 한국인 모두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기뻐하며 울었고, 다시 헤어지는 그들을 보고 슬퍼서 또 울었다.

그것이 관계이다. 인간은 대상적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관계사이에서 태어났고, 상호관계를 먹고 살게 되어있으며, 상호관계속에서만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인간은 대상적 인간이기 이전에 관계적 인간이다. 인간은 관계맺어진 인간과 합하여 하나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관계와 그 사랑이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은 대상적이기 이전에 관계적인 것이다. 한국의 건축인은 건축에서의 관계단절을 아파하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인간, 건축, 자연 사이에 있어야하는 관계단절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이산가족이 되어 만나기를 갈구하고 있고, 잠시 만나게 되었다가 다시 나뉘어야 하는 아픔을 우리의 건축도 겪고 있는지 물어야한다. 아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건축에서 단절된 관계는 회복될 희망이 없다. 건축에서도 우리는 이산가족이다. 모든 이산가족은 만남을 갈구한다. ㉮